사고원인 밝힐 대성호 선미 인양 '초읽기'

전문 인양업체 바지선 투입… 화순항 이동 계획
해경, 야간에도 조명탄 쏘며 실종선원 수색 나서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의 선미(선체 끝부분) 인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 중단한 통영선적 대성호(29t)의 선미 인양 작업을 이날 오후 5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대성호는 지난 19일 화재로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탔다. 선체 중 선수(앞부분)는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미 일부분만 해상에 떠 있다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28분부터 대성호 선미에 줄 3가닥을 연결, 인양을 시도했지만 파도에 의한 선체 요동과 일몰 등 작업 여건 악화로 오후 6시5분쯤 인양을 중단했다. 이후 7시55분 다시 인양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21일 재개된 인양 작업에는 아라호 대신 전문 인양업체의 975t급 바지선과 79t급 예인선이 동원됐다. 바지선은 최대 250t까지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장착하고 있다.

바지선은 대성호 선미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예인선의 인도를 받아 선박 계류와 정밀감식이 용이한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인양할 예정이다. 인양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사고 해역과 화순항까지의 거리(135㎞), 이동 소요 시간(약 15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2일 오전쯤 화순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미가 화순항에 도착하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소방본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 정밀 감식에 나선다.

침몰한 선수도 사고 원인을 밝힐 주요한 증거다. 해경은 침몰한 선수를 찾기 위해 이날부터 해군 기뢰제거함(소해함)을 투입했다.

기뢰제거함 2척은 선수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약 4.6㎞ 범위에서 탐색 작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해경은 선수 수색에서 음파탐지기와 어군탐지기를 활용해왔다. 또 해경은 해군과 무인잠수정(ROV) 투입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해경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사고 장소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5㎞ 떨어진 해상에서 냉장고로 추정되는 부유물 1점을 발견해 대성호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 구명조끼와 파란색 장화 한쪽 등 3점을 수거했으나 아무런 표시가 없어 대성호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밤낮 없이 3일간 이어진 대대적인 수색에도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해경은 22일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01함도 수색에 동원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21일 밤에는 조명탄 170발을 쏴가며 고정익 항공기 5대와 함선·어선 39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에 나섰다.

한편 대성호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1명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이상민기자

21일 해경이 화재로 두동강 난채 물에 떠 있는 대성호 선미 부근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공동취재단

서귀포시 대포동 거린사슴오름 인근 도로 갓길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오름 올랐던 당신, 쓰레기는 어떻게?

인근 도로 갓길마다 탐방객 버린 쓰레기 몸살

제주 한라산 둘레길, 오름 등에는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마지막 산행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이들이 다녀간 뒤 놓고 간 불법 투기 쓰레기 등 버려진 양심으로 인해 제주의 자연이 병들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거린사슴오름. 이곳엔 서귀포시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린사슴 전망대가 있어 많은 탐방객 및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오름 인근 도로 가장자리인 갓길 주변을 살펴보자 마시다 만 커피가 남아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과자봉지, 음료수병 등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운동기구인 아령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조모(49)씨는 "집에서 가까워 운동 겸 거린사슴오름을 자주 찾고 있는데 관광객과 탐방객이 차를 타고 떠날 때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보니 죄책감 없이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름 보호 등을 위해 오름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름 인근 도로 갓길 등의 지역은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지역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서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제주지부 팀장은 "오름 탐방로 등에는 주위에 사람도 많고 관리하는 단체 등도 있어서 쓰레기 등을 찾아볼 수 없지만, 도로 갓길 등의 장소는 그렇지 못해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읍면동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매일 수거 작업을 실시하거나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고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알림판 등을 확대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재선충병 고사목 4만5000그루 제거

제주시 내달 7차 방제 돌입
내년 4월까지 85억원 투입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예산 85억원을 투입해 제7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7차 방제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4만5000여본 제거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주입하는 작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 벤처마루 10층에서 참여 시공·감리업체(14개 업체)및 직영방제단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예방나무주사 방제품질 향상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올바른 약제주입, 색소 혼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1~6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예산 1435억원을 투입했으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167만본을 제거, 처리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비용은 1본당 15만원,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비용은 1㏊당 146만원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은 현재 현장에서 절단해 임시 소각장으로 운송한후 소각 처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라산 경계 인근 주변 우량 소나무림 대상으로 집중 나무주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문 열어주다 할머니 사망… 30대 기소유예

검찰, 시민위 권고 수용
"사망 결과 예견 어려워"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A(33)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B(76·여)씨를 대신해 문을 열어주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의 판단을 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위해 도입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를 권고했으며 검찰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상민기자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주점 부부 징역형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46)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 15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주점을 이전해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주점에서도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월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20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제원직업전문학교 1층, 카페베네-커피전문점
(주)그랜드호텔 메종글래드호텔
뉴월드마트
주차장 구)야구연습장
수협
코스모스사거리
제주국제공항
신제주로터리
제주도청

축 취업
"전기공사 실무자과정" 자격취득 및 취업
전기기사(고성철), 산업기사(고안진)
전기기능사(84%취득)
취업 95%(21명중 20명 취업)
강OO ((주)아프로정보통신) 부OO (한성기전)
고OO (롯데시티호텔) 성OO (해인전력)
고OO (동부방재) 손OO (인켈통신)
김OO (아성기술단) 오OO (서광산업개발)
김OO (제주전기안전관리.주) 오OO (아성기술단)
문OO (대은전기) 임OO (윤성제어)
박OO (선호텔) 최OO (최조명인테리어)
박OO (성우전기) 현OO (코리아에너지)
– 이름은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생략 함
전기공사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수료(2019.7.23.)한 제2기 수료자 여러분의 취업 및 자격취득을 축하합니다.
JW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F ACADEMY 제주특별자치도지정 훈련기관
http://www.jejujewon.com
064-747-5252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83-26 3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